

“한국 독립영화 가능성에 ‘올인’”

전주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인 '전주 시네마프로젝트 2017'의 작품이 26일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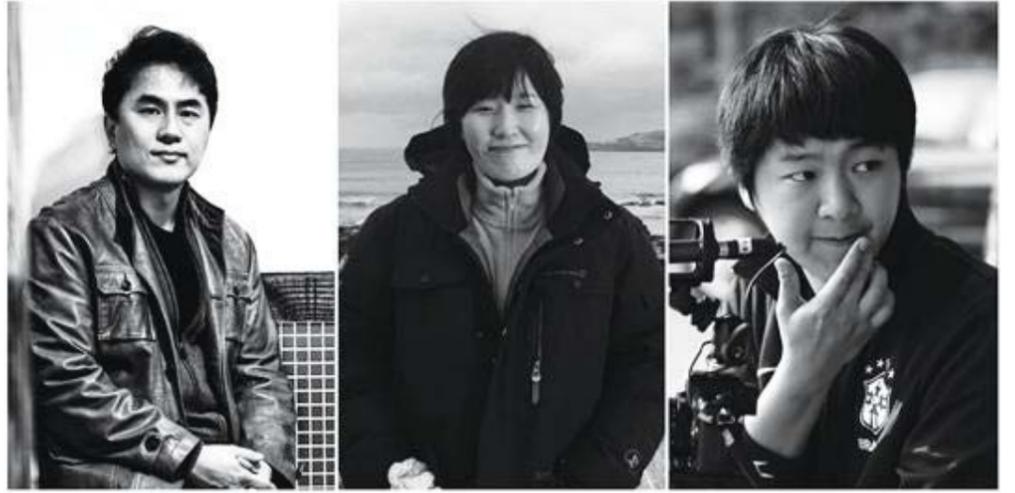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시네마(N 프로젝트)(가제·감독 이창재), <시인의 사랑>(가제·감독 김양희), <초행>(가제·감독 김대환) 세 편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네마프로젝트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세 작품 모두를 한국영화로 선정한 것.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수석프로그램머는 “한국독립영화가 지나간 동면에 접어들어 새로운 미학적 충격을 주류 영화계에 안기거나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한국독립영화의 가능성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한다”며 “그 희망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17년에만 특별히 한국독립영화의 가능성에 전부를 거는 모험을 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재 감독의 <N 프로젝트>는 2002년 국민

▶ 전주국제영화제
시네마프로젝트 2017 라인업 공개

이창재 감독 'N 프로젝트'
김양희 감독 '시인의 사랑'
김대환 감독 '초행' 등 3편



<사진 왼쪽부터>이창재 감독, 김양희 감독, 김대환 감독.

참여경선, 시민혁명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감독은 “<미국전쟁략사>, <사이에서>, <길 위에서>까지 전작이 세 번이나 초청받았던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또 한 번 작업에 큰 도움을 받아 감사무량하다”며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양희 감독의 장편데뷔작 <시인의 사랑>은 사랑의 가치와 관계의 소중함을 담은 작품이다. 김 감독은 “영화 제작이 불투명했을 때 전주프로젝트마켓에서 수상, 전주시네마프로

젝트로 선정되면서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셨던 것을 잊지 못한다”며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행>은 데뷔작 <철원기행>(2014)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의 우수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김대환 감독의 두 번째 작품. 영화는 가족 갈등을 통해 일상의 불안과 상처, 치유를 이야기한다. 김 감독은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선정되

어 대단히 기쁘고 감격스럽다. 덕분에 큰 힘을 얻어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시네마프로젝트는 한국영화 산업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모색하여 시너지를 꾀했다. <시인의 사랑>은 영화사 진이 제작을, OGV아트하우스가 제공 및 배급으로 참여했으며 <N 프로젝트>는 영화사 풀이 제작을 맡아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한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마켓

(JPM) 극영화 피칭 '최우수상' 수상작인 <시인의 사랑>은 기획 단계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발굴된 작품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은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정해은 기자

닭의 힘찬 울음소리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대



꼭두닭



계이

십이지 가운데 열 번째 동물인 닭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는 새 아침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다. 닭울음소리와 함께 어둠이 걷히고 새 아침이 밝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닭을 상서롭고 신통력을 가진 길조로 여겼다.

2017 정유년 닭띠 해를 맞아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새벽을 알리다' 특별전을 27일부터 연다.

띠 전시는 십이지 동물이 상징하는 역사·문화적 의미를 짚어보고 힘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이번 전시에선 닭이 들어간 생활용품·그림·공예품 등 총 50여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새화>와 <닭 부적>에는 새해를 맞아 잡귀를 물리치고 복이 들어오길 기원하는

▶ 전주역사박물관, 정유년 맞아 '새벽을 알리다' 특별 전시

내년 2월 26일까지
복을 기원하는 '새화'
'닭 부적' 등 선보여

마음이 담겨있다. 사람들은 닭을 귀신이나 악귀 등 어둠의 존재를 물리치고 빛을 이끌어 주는 존재로 여겨 닭 부적과 새화를 대문과 곳곳에 붙였다. <꼭두닭>은 장례 때 상여 위에 올리던 닭 모형이다. 닭은 십이지 중 유일한 조류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로 여겨졌다. 꼭두닭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편안히 안내하고, 잡귀를 쫓는 역할을 하였다.

<계이>는 종묘제례 시 술잔으로 쓰이는 제기로, 가운데 닭이 새겨져 있다. 닭은 조상신의 영혼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닭이 새겨진 계이를 제례에 사용함으로써 천하가 편안하기를 염원했다.

닭 한 쌍과 국화가 그려진 <민화 화조도>는 부부금슬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림이며, 붉날 갓 깨어난 병아리가 어미 닭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린 <닭과 병아리 수가 놓인 베크모>는 자손의 번창과 다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정유년에 일어난 역사 사건으로는 완산에서 전주로 개명(757년), 정유재란 발발(1597년), 대한제국 선포(1897년) 등이 있다.

전시는 내년 2월 26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2층)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8-6485~6).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28일 이희정 · 소리꽃의 '희야 배달가자'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 만든 퓨전국악단 '소리꽃'과 '이희정'이 전주전통문화관의 2016년 마지막 '어울수! 놀러오쇼'를 장식한다.

퓨전국악단 '소리꽃'은 장르불문 다양한 음악을 국악 선율로 재해석하며 대중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전한다. 이번 공연에선 국악의 새로운 장르 한가락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악뮤지컬 '행복배달부-희야, 배달가자'를 선보인다.

공연 관계자는 "소리꾼 스스로가 광대가 되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풀어 주려 한다. 극 주인공 희야의 노랫가락과 춤추기 좋은 활달한 장단에 까딱까딱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잊고 싶은 일들과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며 "공연을 통해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과 몸, 희망의 기운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연은 28일 오후 7시 전주전통문화관에서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3-280-7009.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7일>



▷쥐띠

48년생: 결과 속이 다름에 주의하라.
60년생: 구설수에 오르니 때로는 침묵이 약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72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4년생: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뒷사람과 함께 해결하라.



▷용띠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6년생: 자신보다 약자에게 선함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원숭이띠

56년생: 금전적으로 막대한 상환이다. 때를 기다려라.
68년생: 문서에 길상이 비추니 빨리 움직여라.
80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92년생: 익숙했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라.



▷소띠

49년생: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
61년생: 분수에 어긋나는 행동은 원망을 사고 어려움이 따르게 하니 주의하라.
73년생: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수행하라.
85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일을 삼가하라.



▷말띠

5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65년생: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운이니 때를 기다려라.
77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그려칠 수 있다.
89년생: 외면적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이다.



▷양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내실을 다져라.
69년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동기인과 시기가 멀어질 수 있다.



▷호랑이띠

50년생: 짐작은 금물.
6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적극 진행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답답해 할 수 있으니 함께 도모하는 일은 불리하다.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투기나 투자는 불리하다.



▷말띠

54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말릴 듯.
6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수가 있으니 먼저 내보내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78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니 추진하라.



▷개띠

46년생: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결과를 얻으나 늦게 움직이면 놓치게 된다.
82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인과 함께 화합하는 일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양띠

55년생: 상황에 대한 관태를 느낄 수 있는 운이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 막힘이 생기는 운.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운이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나 후반에는 다시 화할 수 있겠다.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